

국제표준화정책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공헌(국제기구활동)

1.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화

One world one network 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정보통신 시스템에서는 원래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을 국적에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은 본질적으로 국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ITU나 UPU가 국제기구로서 설립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전후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국경을 초월한 「인간」, 「물질」, 「금전」의 역할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각국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하여, 다른 국가의 시장 진출에 강한 관심을 갖게되어 독립국가라고는 하여도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을 둘러싼 문제가 「물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문제도 포함하게 되었다. 각국이 각각의 무역수지를 받아들여 자국의 대외불균형 시정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서비스」분야의 하나로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게 되었다. 각국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서비스 무역의 한 분야로서 GATT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상황이다.

특히, 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 유통이 활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금융 분야에서는 동경, 뉴욕, 런던의 세계 3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국제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24시간 거래 체제를 실현하였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해외의 주요거점에 대형 컴퓨터를 도입하여 각 지역의 생산, 판매, 보수 서비

이 글은 신일본 ITU협회 발행 ITU저널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게재한 것입니다.

스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각 거점을 통신회선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분야는 주로 외국과 상호 접속시킨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면이 중심이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국제화의 진전에 수반되는 요구의 고도화, 다양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의해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가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국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점을 바꾸어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시장에서는 정보통신의 자연독점성, 공공성 등에 의해 국가를 단위로 한 독점 캐리어가 존재하며, 이 캐리어가 각 국가에서 시장을 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제적인 전기통신 정책도 이러한 시장의 양태를 반영하여 정부에서 국내를 규제하거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위와 같은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증진되고, 정보화 진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여러 국가의 경쟁 도입, 정보통신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는 세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각국의 국내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초월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위성통신 기술과 데이터 통신 기술의 진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대폭적으로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는 광파이버 기술이나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발달에 의해 정보전달 능력이 매우 증대되었고, 그 결과 정보교환 비용이 대폭 낮아진 이외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질이 눈부시게 향상하였다. 1990년대에는 이동통신이 정보통신 분야를 휩쓸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B-ISDN 등과 함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실용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해졌으며, 그 결과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용자의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고도화, 다양화되었으며, 고도화·다양화는 정보통신 기술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확대 재생산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 급속하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고도화와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제도 면에서는 경쟁 도입, 민영화라는 개혁의 동향이 세계적인 무역이 되어 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결과 각 국의 정보통신 사업 자유화, 경쟁

도입, 외국기업의 경영참가 등에 의해 하나의 기업이 여러 국가의 정보통신 시장에 참가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적인 정보통신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재 일본의 전기통신은 질, 양적인 면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선진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목표로 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의 세계에서 일본의 책임과 의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3년도의 정보통신정책요점에서도 우정성 정책의 하나의 커다란 기동으로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수행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완수해야 할 역할과 문제점 및 국가기관을 통한 국제협조 추진이라는 견지에서,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U의 조직개혁에 대하여 대충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 속의 의견, 방침과 관련된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2.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정보통신 기기 공급에 의한 공헌

일본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완수하고 있는 최대의 역할은 정보통신 기기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세계 각국에 고성능, 고품질 통신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의 정보통신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이며, 뛰어난 일본의 정보통신기기가 이 분야에서 자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지탱해 주는 기동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국의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미국, EC 각국 등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초과 상황에 있어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모든 국가에 더욱 수출노력을 요청함과 아울러 국내시장의 새로운 투명성과 진출을 확보하여 국제화를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통신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이전에 의한 공헌

정보통신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인 역할이 앞으로 한층 더 충실하게 되리라 기대되는 분야는 기술 공급국가로서의 역할이다.

정보통신은 기술선도적인 분야로 기술이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력으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금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 각국에 의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급, 전파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전파하는 데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는데, 기기 수출에서도 전송이나 교환기와 같은 네트워크 기기인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업무제휴나 기술도입 계약과 같이 상업을 기본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이러한 기술의 국제적인 교류가 원활하면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표준화 활동에 의한 공헌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전파하는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주로 ITU의 CCITT나 CCIR에 대한 공헌이라는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ITU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공헌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ISDN이나 HDTV등 일본의 기여가 단순한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관련기술의 국제적인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완수한 예도 여러가지 존재한다. 이 분야에 대한 공헌이 더 한층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제협력 추진

일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면에서 국제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국제협력사업단, 민간기관이나 국제기관 등을 통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때는 단순히 정부 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각 메이커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민간 부문과의 밀접한 연계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자금 공급에 의한 공헌

정보통신의 기반구조를 정비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또한 예전의 사업체와 새로 참가하는 업체를 불문하고 커다란 과제이다. 이러한 자금공급은 기업의 직접투자나 금융기관의 융자 등 여러가지 형태를 띄며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대국인 일본에 대한 자금공급 기대는 매우 큰데, 일본은 관민 2개 부문에서 자금협력을 앞으로도 더 한층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민영화, 경쟁도입의 노하우 이전에 의한 공헌

특히, 정책선진국으로서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있다.

1985년 NTT 민영화, 시장으로 경쟁도입 등의 개혁에 의해, 현재 일본의 정보통신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며 개방도가 높은 것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은 정책사업, 회사, 주식회사와 여러가지 경영형태를 경험하여 전후의 혼란기에서 고도경제 성장기, 에너지 위기를 겪은 후의 안정성장기와 여러 환경하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각국이 예전의 정부사업으로서의 전기통신 경영형태로 다시 나간다는 기운이나 동구 각국이 자유화 후 민영화로 바뀌는 동향 속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정책운영상 여러가지 경험은 이러한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전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예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에 병행하여 이러한 각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확충하고 정책면에서 충실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정책협력 증진에 의한 공헌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계의 정보통신질서는 현재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었던 예전의 독점적인 사업체 간의 횡적 관련을 기본으로 한 협조적인 질서에서 통신사업자나 메이커 간의 경쟁관계를 주축으로 한 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정보통신기기 표준화, 특히, 기술개발들이 중요 전략사업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전기통신이 주요한 서비스 부분으로 취급되고 GATT의 서비스 무역 의론 등에서 각국의 시장개방 정책이나 국제통신 사업정책과의 관련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이 예에 속한다. 또한, ITU 조직개혁, 그 외의 인텔셋, 인텔셋의 경쟁시스템을 둘러싼 문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표현한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전기통신의 기반구조를 정비한다는 면에서 남북 격차 해소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진국이며, 일찍부터 경쟁을 도입해 온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인 질서형성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적인 정책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모든 관계 국가와의 2국간 정책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외에, ITU를 비롯한 국제관계기관이나 지역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기구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기구로는 ITU 인텔셋, 인텔셋, ICAO, IMO ISO 등 이외에 정보통신 서비스적인 측면을 취급하는 GATT, OECD 등이 있다. 이 중 GATT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반을 담당하는 ITU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TU에서는 정보통신을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전과 같이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며 조직, 기능을 효율화, 간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에 ITU의 조직, 기능개혁의 배경 및 개혁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TU 조직, 기능개혁

(1) 변모하는 ITU의 기능

정보통신 분야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ITU는 주요 책임과 의무인 다

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 국제전기통신 제도, 운용문제의 상대적인 지위가 ITU 안에서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 규칙이 전문 10조인 간략한 규칙으로 되고, 각 국의 재량의 여지가 매우 커졌다는 것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통신망의 세계적인 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통신망이 세계화되고 있음에 수반하여 ITU 표준화는 단순히 국제망을 표준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망도 표준화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는 기술개발의 첨단분야로서의 의의를 갖기에 이르러 사업자, 통신기기 메이커에서도 사활을 걸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다) 민간 부문 참가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ITU 활동 전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표준화 분야에서는 그 활동의 성질상 매우 현저하다. 이것을 받아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사업체(RPOA), 메이커(SIO)등이 참가하도록 대폭인정되었다.

라) 주파수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60년 이후, 위성통신이 국제통신의 주역이 되었고, 그 결과 주파수 분배 문제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위성통신에는 동보성, 회선설정의 용이함, 이동체통신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함 등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성통신관계의 국제적인 주파수 및 제도분배가 매우 중요해졌다.

마) 기술협력 활동은 정보통신의 기반구조를 정비한다는 면에서 남북격차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그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세에서 ITU가 어떻게 자기변혁을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각 활동 분야별로 현상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준화 활동

최근의 정보통신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고도화와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CCITT, CCIR의 활동 중에서 RPOA, SIO의 공헌정도가 질, 양적인 면에서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리라 생각된다.

예전의 표준화 프로세스는 우선, 총회에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권고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제를 설정하여 담당 SG에 할당된다. 이 과제에 대하여 각국에서 기서(寄書)형식으로 제출한 권고안을 SG하에서 설정된 작업부회(WP) 회합에서 심의한다. WP에서 동의를 얻은 후, SG 회합에서 정식으로 권고안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검토한다. SG에서 권고안이 승인되면 이것을 총회에서 채택할 것인가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검토한다. 이렇게 예전의 프로세스에서는 검토하는 각 단계에서 관계자의 이해를 충분히 조정한 후, 표준이 설정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반면, 최근의 급속한 진보속에서 4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만 권고가 작성되면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에 따른 기술 수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용화 되거나 보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작업자체에 대한 비용이 많아져 기술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 기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른 요즈음에는 표준화 속도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U로서도 예전과 같은 기능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표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회 대신에 우편투표로 표준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우편투표가 주체가 될 것이라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준화 작업에서 SG 장소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작업을 분산하고 다른 장소에서 검토를 한 후 SG에 보고하여 권고를 승인한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ITU 표준화 프로세스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너무 졸속하여 충분한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일부 국가나 지역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성립된다는 사태도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ITU 전체의 표준화 활동을 지역간 전기통신 표준화 회의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이나, 특정한 지역표준화 기관이 채택한 표준이 결합이 있는 형태로 국제표준으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TU와 지역표준화 기관 등과의 조정 기구확립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3) 무선통신 분야의 활동

ITU에서 무선통신분야의 활동은 CCIR 및 IFRB에서 주파수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 유일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유효이용(공평한 이용 확보, 효율적인 사용 확보)
- ◆ 혼신방지(국제적인 분배표 작성, 사용주파수 국제간 계약, 국제조정)
- ◆ 운용방법 통일(조난안전통신등 국제적인 통신소통 확보, 이용자 편리 향상)

CCIR은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상, 운용상의 국제표준 작성, 주파수, 궤도 유효이용에 관한 기준 작성을 임무로 하여 SG에서 작성한 권고안을 총회에서 채택하거나 무선통신 주관청 회의에서 무선통신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IFRB는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을 등록하거나 무선통신 규칙의 통일적인 해석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CCIR 표준화 작업은 CCITT와 거의 같은데 채택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똑같이 우편투표를 도입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 규칙(RR)에는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 IFRB로 주파수 등록, 국제조정절차, 무선국 운용등이 규정되고 있는데,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RR 자체를 간소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기술협력활동

ITU는 원래 통신상호 접속, 상호운용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공통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ITU가 실시하는 기술협력활동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설비 및 네트워크를 확충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기술을 원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술면, 시설면의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수준 높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ITU의 기술협력을 위한 조직으로는, 1989년의 니스 전권위원회에서는 예전의 사무총국의 일부분이었던 기술협력부(TCD)를 개조하여 새로운 전기통신개발국(BDT)을 창설하였다. 또한, 민간기관, 정부기관이 임의로 거출하여 운영하여 온 전기통신 개발 센터(CTD)를 1991년말까지 BDT에 통합하여 ITU 기술협력 활동 조직을 일체시키기에 이르렀다.

조직의 정비와 병행하여 ITU 기술협력예산과 활동등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ITU가 실시하는 기술협력 활동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UNDP 자금에 의한 것인데, 이 자금은 절대액으로는 ITU 기술협력 자금의 주체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정체, 감소되는 경향이다.

ITU의 기술협력 활동이 확충되는 것 자체는 환영해야 할 만 하지만, 반면에 확충을 위한 경비가 ITU 전체 예산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표준화 활동 등 그 외의 분야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또한, 숫자에 우세한 개발도상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ITU 기술협력 활동의 내용이나 예산이 너무 좌우된다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ITU의 다른 활동분야와 균형있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ITU 조직개혁안의 개요

지금까지 설명한 환경변화나 ITU 자체의 기능변화 속에서 ITU가 보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보통신분야에서 기대되는 기능을 계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ITU 자신이 개혁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한 니스 전권위원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하이레벨 위원회는 1990년 여름부터 1991년 4월 사이에 ITU의 조직과 기능을 다시 평가하고, 검토 결과를 정리한 1991년 5월의 관리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관리이사회에서 설립한 현장, 협약초안위원회가 정리한 ITU 현장, 조약개정안은 올 12월의 추가 전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TU의 새로운 조직

ITU의 활동을 표준화, 무선통신, 개발의 3가지로 구분하여 ITU의 조직상 표준화 부문, 무선통신부문, 개발부문에 정리통합한다. 각 부문은 각각 하나의 회의, 연구그룹(SG), 자문그룹, 사무국(선출된 국장 1명이 지휘한다)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무총국장의 임무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ITU의 전략적인 정책 및 활동계획 등을 작성한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 이미 사무총국장하에

서 전략기획 기구가 설립되었다.

각 부문의 조직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ITU 새로운 조직 예상도는 그림 1과 같다.

ITU 새로운 조직의 개요

가) 표준화부문

예전의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의 활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전기통신의 기술, 운용 및 요금에 관한 표준화 문제를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고를 한다. 부문내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표준화 회의(4년마다) <---CCITT 총회

(나) 자문그룹

(표준화 정책, 전략 검토---민간 참가)

(다) 연구그룹(SG) <--- CCITT/CCIR의 SG 재편성

(라) 표준화국(국장이 지휘) <--- CCITT 사무국

또한, 예전의 전신전화 주관청회의(WATTC)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라 개칭하고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한다.

나. 무선통신 부문

예전의 무선통신 주관청회의(WARC)와 CCIR 및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IFRB)의 활동을 통합하여 무선규칙 개정, 무선총신 기술, 운용등의 문제 연구 및 권고 작성, 주파수 할당, 등록 등을 한다. 부문내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무선통신 회의(2년마다) <---WARC와 CCIR총회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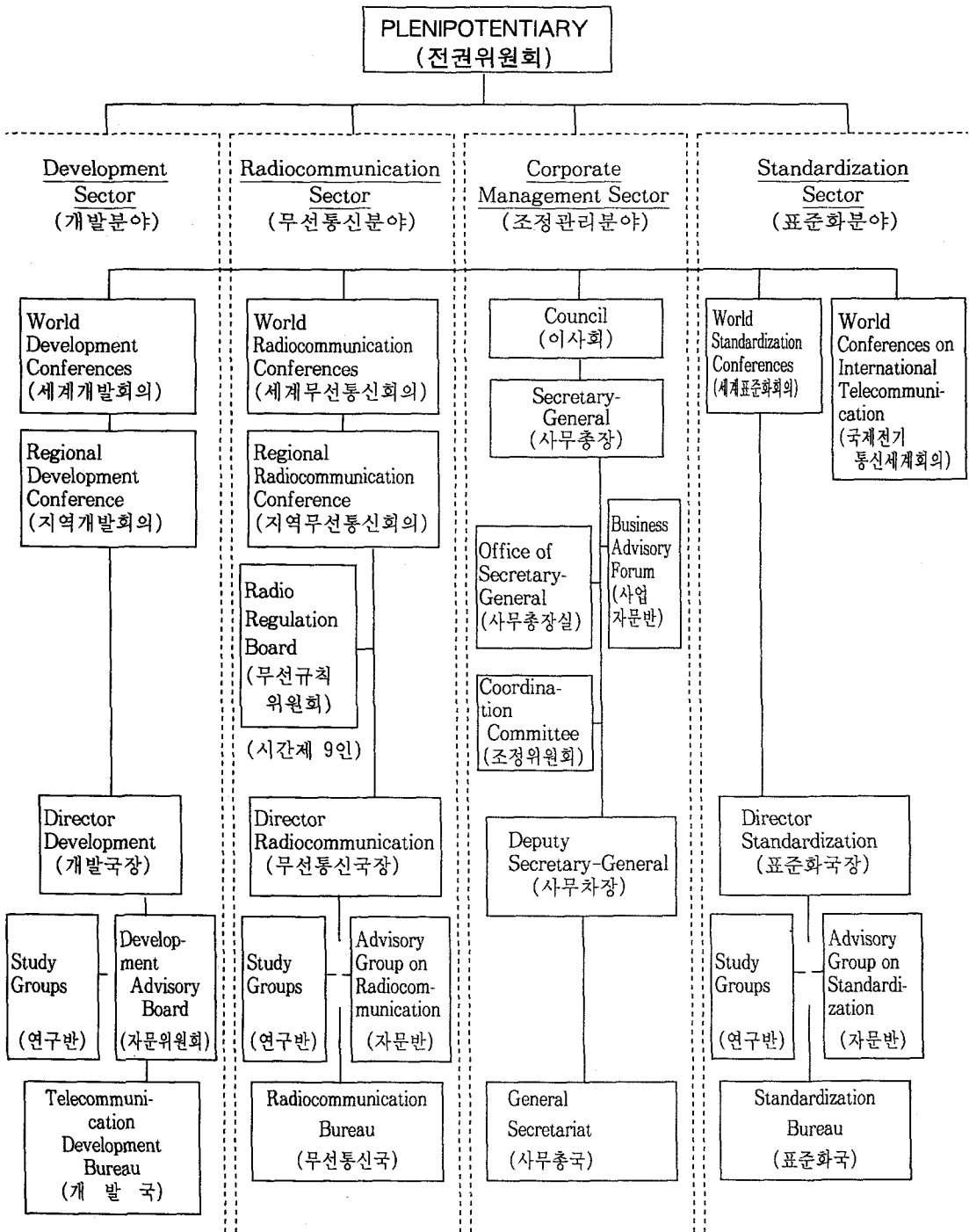
Radio Regulations Committee <---WARC

Technical Committee <---CCIR 총회

(나) 지역무선통신회의(부정기) <---지역무선통신 주관청 회의

(다) 자문그룹 (SG로의 안내-----민간참가)

〈그림 1〉 ITU의 조직예상도



- (라) 연구그룹(SG) <---CCIR의 SG 재편성
- (마) 전파규칙평의회(9명의 비상근위원) <---IFRB 임무의 일부
<예전에 상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IFRB를 개조하여 비상근 9명의 위원
(선출)에 의한 전파규칙평의회로 한다>
- (바) 무선통신국(국장이 지휘) <---CCIR 사무국과 IFRB 통합

다. 개발부문

전기통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부문내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4년마다)
- (나)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각 지역에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1회)
- (다) 자문위원회(민간의 의견반영) <---CTD 고문보드 발전
- (라) 연구그룹(SG)
- (마) 전기통신개발국(국장이 지휘)

ITU 활동에 민간 참가

ITU 활동에 예전부터 민간참가자(RPOA, SIO) 중 RPOA(Recognized Private Operating Agency)의 “Private”는 삭제하고 ROA로 한다. 또한, ITU 활동에 참가자를 금융기관, 개발기관, 그 외의 전기통신을 취급하는 것, 지역 및 다른 국제적인 전기통신, 표준화, 금융, 개발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것의 참가자의 참가요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단, ROA 참가자격과 참가자 분담금 지불방식은 예전과 같다.

5. 교토 전권위원회의 성공을 목표로 하여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인 공헌에 당면한 과제로 1994년 가을 교토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TU는 창립 이래 100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인 전권위원회회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정보통신의 선진국인 자국에 전권위원회의의 초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져 왔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국제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9년 5월에 각의에서 ITU 전권위원회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기로 양해를 얻고, 같은 달 프랑스의 니스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일본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그 후 1991년 ITU 관리이사회에서 1994년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개최장소로 교토를 확정하였다.

교토에서의 전권위원회회의는 ITU의 새로운 조직체제하의 최초의 전권위원회회의가 되어 국제적인 정보통신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는 의의 있는 회의가 되리라 생각된다. 전권위원회회의의 성공은 우정성 하나만의 힘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보통신 관계자가 관민일체가 되어 협력하여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정성에서는 관계된 민간기업, 관계단체와 밀접한 협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다.

6. 결 론

ITU는 지금까지 1세기 이상에 걸쳐 국제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국제기구로 존속해왔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국제조정이 다양화, 복잡화되리라 생각되며 ITU로서도 앞으로의 연장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ITU가 21세기를 향하여 그 존재의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이나 국제환경에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ITU가 기대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전세계의 정보통신의 상호접속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공헌하게 된다면 국민이나 산업계 등에 있어서도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의 조직과 기능의 재평가가 ITU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반강화를 위한 기초가 되고, 아울러 ITU 활동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올 12월의 ITU 추가전권위원회회의를 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